

‘몸’ 마음공부의 기반 vs 장애

몸은 삶의 토대이며, ‘나’라고 집착하는 한 물건이다.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 간주한 플라톤, 개신교 금욕주의를 비롯해 불교의 부정관(不淨觀)에서도 몸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됐다. 마음공부의 기반이라기보다 마음공부의 장애로써 정신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오염의 진원지로 취급되기도 했던 몸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밝은사람들(소장 박진욱)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를 주제로 제8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좌장인 김중욱 동국대 교수와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초기불교), 성태용 건국대 교수(대승불교·동양철학), 변희욱 서울대 교수(선불교),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서양철학), 우희종 서울대 교수(생물·면역학), 강신의 인제대 교수(동서의학)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초기불교=정준영 교수는 주제발표 ‘몸, 놓아야 하는가 잡아야 하는가’에서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몸에 대한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초기불교에서 몸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인 동시에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통로였다”고 말했다.

붓다는 ‘육체로서의 몸은 ‘빠로 만들어지고 피와 살로 덧칠해진 무상(無常)한 것’으로 몸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 설명했다. 오온(五蘊)중 색(色, rupa)으로 구성된 몸은 물질 자체가 번뇌성을 본질로 해 생로 병사를 벗어날 수 없다.

정준영 교수는 “색으로서의 몸은 수(受, 느낌)를 낳고 ‘수’는 애(愛, 갈망)를 불러오며, ‘애’는 취(取, 집착)를 야기한다”면서 “몸을 전제로 한 느낌과 갈애는 집착과 그로 인한 고통을 야기하는데 매우 현저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몸에 대해 바르게 알고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



12월 12일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에서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오른쪽)와 좌장 김중욱 교수.

밝은사람들 12일 학술연찬회

‘육망 대상’ ‘지혜 통로’ ‘수행 자체’

몸을 몸답게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

조하는 것은 초기불교의 수행 특성이었다. 사념처 수행이 그에

정 교수는 “초기불교에서 몸은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그래서 놓아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했다”면서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몸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불교=변희욱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 ‘선, 몸으로 하라’를 통해 “몸이 수행과 공부 그 자체의 표현임을 설명했다. 변 교수는 주장하는 몸에 대한 선불교의 시각은 공부의 깊이가 몸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변희욱 교수는 “조사들이 침묵으로 말하고 몸으로 말했다”면서 “언어 이전의 지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선정”이라 강조했다.

선정의 대표적 형태는 좌선이지만, 몸의 행식을 우선시한다면 선이 아니게 된다.

혜능 스님이 ‘좌선의 핵심은 다리 꼬고 앉는 것이 아니라 양변(兩邊)을 떠나 본래면목을 보는 것’이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변 교수는 “선은 본래성품을 보

아 어렵지 않게 함이다. 본래성품 혹은 본래면목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선의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몸이 없으면 내 본래면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희욱 교수는 “선도 악도 생각없이 몸도 마음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공부가 깊어지면, 몸이 저절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동양철학=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수신과 양생’에서 “유학에서의 몸은 군자와 소인의 분기점이며, 도덕적 실현의 준거가 된다”고 말했다.

유가에서는 몸 수양이 마음 수양의 기반이지만, 도가에서는 몸에게 자연성을 돌려주는 것이 양생의 길이다.

성 교수는 “유가처럼 몸을 덕과 예의 차원에서 보진, 도가처럼 몸을 무위와 자연의 시각에서 대하건 중국철학은 몸을 통한 부지런한 연마속에서 마음뒤움도 함께 이뤄짐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서양철학=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는 ‘몸과 살, 그 신비하고

불투명한 토대’에서 “몸은 인간 활동과 인간의 온갖 바람들이 근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론적인 토대였다”면서 “인간의 모든 가치들이 발원하는 근원”이라 강조했다.

#동서의학=강신의 인제대 교수는 주제발표 ‘의학, 의술, 의덕’에서 몸이 마음까지도 포섭한다는 몸 일원론적인 입장에서 의학을 탐색했다.

강 교수는 “몸을 역동적 생성자로 보는 지혜가 의학이며, 항상 새로워지는 몸의 규범인 의덕(醫德)을 실천적 행위의 체계로 구현하는 것이 의술”이라 설명했다.

이어 강신의 교수는 “의(醫)는 몸에 대한 몸을 통한 몸의 공부”라며 “몸은 마음을 포함하므로 몸 공부는 마음공부이며, 몸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지유”라 주장했다.

#생물·면역학=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 ‘장발현상으로 깨어있음의 몸’에서 “몸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진화발생생물학과 정신신경면역학의 입장에서 규명했다.

우 교수는 “깨달음은 몸과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것이며, 그 하나됨을 통해 그 하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돈오(頓悟)”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희종 교수는 “돈오의 바탕이 된 그 하나됨이 실제 없는 장발적 현상이듯, 이때의 돈오라는 깨어있음 역시 완전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장발적 현상”이라 말했다.

#정리=좌장 김중욱 동국대 교수는 “몸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되 집착 않고 놓아야 한다는 식으로 초기불교에서처럼 몸을 관찰하건, 선불교식으로 온몸으로 의식한건 몸은 기계적 실체가 아닌 복잡계적 창발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몸을 몸답게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마음공부의 튼튼한 기반”이라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국내 최고 문양 비단·구슬 등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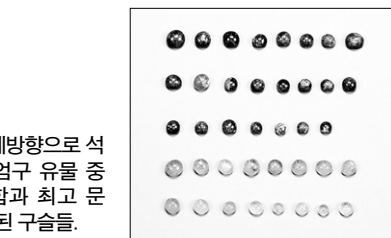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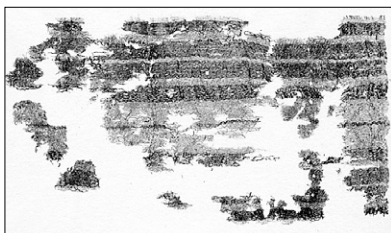
국립중앙博 “순수 국내 기술로 석가탑 유물 보존처리 완료”

석가탑 발견 유물을 보존처리 하는 과정에서 국내 최고(最古) 문양의 비단과 370여 점의 유리구슬이 발견됐다. 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이어 제2의 다라니경으로 오인돼 온 지류 등치는 1038년 1월 정균이라는 스님이 납입한 항복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12월 17일 “석가탑 발견 유물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66년 도굴로 훼손된 불국사 석가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 다수를 일괄 인수해 보존해왔다. 1988년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보존처리해 공개한 데 이어 2007부터 2년 여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머지 유물에 대한 보존 처리 작업을 해 왔다.

그 결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목서지편에서 <보현인다라니경>과 불국사 석가탑의 중수과정을 비롯해 고려 초기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중수문서가 확인됐다. 금동제 사리외함 등 사리장엄구의 제작기법을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석가탑 사리장엄구 유물 중 금제사리외함과 최고 문양, 새로 발견된 구슬들.

비롯해 청동으로 알려졌던 청동제 비전상이 금동제(金銅製)인 사실과 은제 매화판이 청동제(靑銅製)인 것도 밝혀냈다.

1967년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될 당시 흙덩어리 상태였던 매납품 속에서 370여 점에 이르는 다양한 재료의 구슬을 새로이 확인했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고대 직물 중 최초로 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금(鎊)과 라(羅), 주(紬), 능(綾) 등 다수의 고대 비단을 찾아내 이 복원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 동안

제2의 다라니경으로 오인돼 왔던 지류문지를 해체해 이 유물이 1038년 1월 정균(正均)이란 스님이 납입한 항 3봉인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보존처리는 1988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일본 기술자에 의해 처리된 것인데 반해 순수 국내 보존과학 기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를 국립중앙박물관은 <불국사 석가탑유물 04-보존처리·분석>에 수록해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조동섭 기자

“금오 스님 사상·정화운동 재조명” 한국불교선리연구원 발표회서 김광식 교수 주장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인 금오 스님(1896~1968)은 한국불교의 태두로 주목 받는 선지식이다. 근현대 한국불교사에서 큰 비중을 지닌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스님에 대한 학술적 연구성과는 미흡했다.



김광식 부천대 교수(사진)는 12월 15일 선학원에서 열린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제9차 월례발표회에서, “금오 스님에 관한 사상과 정화운동 등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에서 “금오 스님은 명망을 떨치는 수행을 하면서, 불법의 근원에서 이탈하는 불교를 걱정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불교정화운동의 최일선에 나선 선지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광식 교수는 “문도 외에 스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자료가 전무하다”면서 “금오 스님의 생애, 사상, 삼법맥, 정화운동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금오 스님에 관한 자료는 문도회가 발간한 <금오집>과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손신영 전북대 연구교수가 ‘경기도 남양주 흥국사의 불전과 조선 후기 왕실’을 주제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불국사 경내 등 사적 문화재청 7개소 재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12월 15일 ‘경주 불국사 경내’ 등 6개소를 7개소의 ‘사적’으로 재분류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주 불국사 등 7개소는 ‘사적 및 명승’으로 관리돼 오던 곳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분류 기준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사찰의 경내지역 등은 ‘사적’으로, 사찰의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수림지역 등은 ‘명승’으로 재분류됐다.

경주 불국사 경내는 구역전체가 사적으로, 그 밖의 사찰은 경내지역과 주변 수림지역은 각각 사적과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 불국사 경내’는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등으로 재분류됐다. 조동섭 기자

법인설립 간부초빙 입종안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곳에 입종하세요!

가. 우리종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비 법인종단을 통합하고 찬란한 불교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각 사암 종도들에게 정보교류를 제공하여 근본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애국 애민하는 호국불교 정신을 구현하는데 전념을 다한다.

나. 전 종도 및 사부대중은 현 시대에 발맞추어 찾아오는 종교, 은둔생활을 벗어나 찾아가는 생활불교를 실천하면서 이 사회에 봉사한다.

다. 한국 불교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미술대전과 국제교류전, 초대전등을 개최하여 초야에 묻힌 인재를 발굴 양성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다.

- 입종안내 : 비구 비구니 작가스님 법사(무속인 제외)
- 재야작가 : 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소, 공예, 불교미술(건축포함) 등
- 등록서류 : 본종의 소정의 양식,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해 드림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 23-3번지 미술사 총무원
연락처 : 055)747-8006 / 010-5518-0108 / 팩스 : 055) 754-8004

사단법인 대한불교우리조계종
법인설립추진위원장 人化堂 知道 外 一 同

한 권으로 읽는 전통사찰의 모든 것!

한국의 명찰사리즈는 불교 전문학술서가 아닙니다. 불자는 물론 일반인 누구나 쉽게 사찰이라는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 형태의 사지입니다.

사찰이 산중의 수행터만이 아니라 대중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 공간임을 우리나라 전통사찰 중 대표로 손꼽히는 명찰, 전등사·화엄사·월정사 편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전등사 1 | 술한 외침에 맞섰던 최후의 부루지역 강화도, 전민의 한가운데서 호국사리로서 면모를 유지해온과 동시에 특징적인 각종 축제로 대중과 함께하는 오늘의 전등사를 만날 수 있다. | 저자·신대현, 신국판/172쪽/울림리/18,000원 |

화엄사 2 | 6.25전쟁 중 폐허로 변한 주변 암자와 달리 화를 면하고 문화재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귀중한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있는 화엄사 절곡의 역사를 간직한 채 각종 문화와 교육사업 등으로 대중에게 파고드는 화엄사를 만날 수 있다. | 저자·신대현, 신국판/228쪽/울림리/20,000원 |

월정사 3 | 오대산의 중심사찰로 개산초 자장율사에서부터 근대의 한양, 탄허스님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선지식들이 머물던 곳 월정사 국보 팔각구층석탑 등 문화재에 대한 상세설명은 물론 '단기총가'로 유명한 현재의 모습과 각종 행사 등을 일목하게 소개하고 있다. | 저자·한성길, 신국판/232쪽/울림리/20,000원 |

발행 및 보급: **대한불교진흥원**
☎ 02-719-2606

※ 한국의 명찰사리즈는 계속 발간됩니다.